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국내외 장소성 관련 연구동향 분석*

Analyzing the Study Trends of 'Sense of Place'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이 인 아 (Ina Lee)**

김 혜 진 (Hea-Jin Kim)***

초 록

주경로 분석(Main Path Analysis, MPA)은 문헌의 인용정보를 기반으로 지식이 전달되는데 기여한 핵심 문헌을 추출하는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외에서 발행된 장소성 관련 논문의 인용정보와 초록을 토대로 주경로 분석과 단어동시출현빈도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수집된 문헌을 5년씩 기간 구분하여 (마지막 기간은 3년) 각 기간 별로 국내외에서 장소성 관련 연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주경로 분석 결과, 1990년부터 해외의 장소성 관련 연구는 개인 정체성, 공공 토지 관리, 환경 교육, 도시 개발 분야 순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동시출현을 기반으로 한 연관어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국내의 경우 도시 개발, 문화, 문학, 역사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장소성이 논의되는 격변기를 겪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반면 국외에서는 건강, 정체성, 경관, 도시 개발 관련 논의가 90년대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장소성 연구동향을 기존의 특정 영역에 장소성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미시적 관점의 분석이 아닌 다양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장소성을 주제로 삼고 있는 논문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통시적 접근의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지닌다.

ABSTRACT

Main Path Analysis (MPA) is one of the text mining techniques that extracts the core literature that contributes knowledge transfer based on citation information in the literature. This study applied various text mining techniques to abstract of the paper related with sense-of-place, which is published at Korea and abroad from 1990 to 2018 so that could discuss in a macro perspective. The main path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from 1990, overseas research on sense-of-place has been carried out in the order of personal identity, public land management, environmental education and urban development-related areas. Also, by using the network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sense-of-place was discussed at various levels in Korea, including urban development, culture, literature, and history.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are few topic changes in international studies, and that discussions on health, identity, landscape and urban development have been going on steadily since the 1990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that it presents a new perspective of grasping the overall flow of relevant research.

키워드: 연관어 네트워크, 인용분석, 장소성, 주경로 분석, 텍스트마이닝

Word co-occurrence Network, Citation Analysis, Sense of Place, Place, Main Path Analysis, Text Mining

* 이 논문은 201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581).

**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과정 (inalee5457@gmail.com) (제1저자)

*** 국립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조교수 (erin.hj.kim@kongj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9년 5월 22일 논문심사일자 : 2019년 6월 4일 게재확정일자 : 2019년 6월 1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2): 189-209, 2019.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9.30.2.189]

1. 서론

모든 학문 분야에서 지식 확산에 대한 이해는 연구자와 실무자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오랜 시기를 걸쳐 형성되고 발전을 이루어 온 성숙기에 접어든 학문 분야를 인지적으로 쉽게 파악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어려운 일이다. 특정 분야에서 발행된 문헌의 인용 정보를 활용하여 그 분야의 지식 전달과정을 추적하는 주경로 분석(Main Path Analysis, MPA)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식이 전달되는데 기여한 핵심 문헌을 추출하는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하나이다(Hummon and Dereian 1989). 주경로 분석은 인용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경로(path)의 복잡성을 횡단빈도(search path count)를 산출하여 간단하게 표현하고 지식의 주요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Verspagen 2007). 본 연구에서는 도시 설계와 지역 축제, 상품 마케팅 등에서 두루 활용되고 있는 '장소성'이라는 개념을 다룬 연구들이 어떤 지식의 전달과정을 거쳤는지 주경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간'과 '장소'라는 단어는 큰 차이를 두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되지만,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두 단어는 명확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공간(空間)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곳',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를 의미하며 장소(場所)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을 의미한다. 즉, 공간은 물리적 측면이 강조되는 반면, 장소는 좀 더 구체적이며 주관적·해석적 측면이 강조된다. 사람

들은 공간 속에서 그들의 경험과 기억, 기대 등을 토대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곳이 장소가 된다(김혜영, 김세준 2014; 이무용 2006). 인간의 경험을 통해 추상적인 공간이 고유한 의미가 담긴 구체적 장소로 변화하며, 무미건조하고 무의미했던 물리적 공간이 친밀한 장소로 다가올 때 장소성이 형성되는 것이다(Tuan 1977, 6). 이는 사람마다 특정 장소에 대해 각기 다른 경험과 의식을 통해 주관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백선혜 2004). 또한, 한 장소의 고유한 정체성은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을 제공하여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한다(Relph 1976, 45).

장소성이 지니는 경험적·주관적 특성은 특정 공간을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느낄 수 있게끔 탈바꿈시키는 장소 마케팅 측면에서도 강조될 수 있다. 장소 마케팅의 개념은 초기 장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브랜드 개발에 초점을 둔 것에서 출발해 이제는 단순히 장소를 파는 것을 넘어 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춰 장소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발전하였다(이용균 2005). 특히 최근에는 지역경제발전 측면에서 장소 마케팅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과 주체들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박범중, 서선영 2018).

본 연구는 주경로 분석을 적용하여 장소성 관련 연구가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었는지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다음으로 동시출현단어 기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장소성 연구동향에서 언급되는 연관어들을 분석하는 미시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경로 분석 결과에서 얻은 전반적 연구 흐름에 대한 실마리를 바탕으로 해당 연관어 분석에서는 시기별 중요 단어들을 추출해 장소

성이 적용된 세부 연구 분야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시기별 국내외 연구동향의 구체적인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2. 선행연구

장소성에 관한 연구는 70년대에 Tuan(1977)이 장소(place)와 공간(space)의 차이점을 짚어낸 연구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90년대 들어서는 지역개발, 환경계획, 개인 정체성 형성 등의 맥락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Brandenburg and Carroll(1995)은 한 인간의 개인적인 경험이 특정 장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 지역에 대한 마음가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특정 장소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다수와 공유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지역 차원에서의 대중 참여프로그램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Easthope(2004)는 주택 및 집(house)과 장소성 개념을 접목한 연구로 이주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집이 하나의 장소로써 지닌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집이 한 인간의 정체성 및 심리에 미치는 영향력을 짚어내면서 가정,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 규모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장소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단순 도시 계획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 및 생태계와 관련된 이슈들을 장소성 개념과 결합하여 해결하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Masterson et al.(2017)은 한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형성된 장소성이라는 개념이 환경 및 생태계 보호 차원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특정 지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형성된 장소성이 집단 구성원들이 환경보호 관련 규범을 기꺼이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게끔 유도한다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환경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소성 개념을 적용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국내의 장소성 관련 연구는 1980년대에 처음 소개되었으나(이규목 1980),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 진행되었다 할 수 있다. 이석환, 황기원(1997)은 환경계획 측면에서 다소 모호했던 장소성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소'라는 것이 '공간'과는 뚜렷이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에서는 장소성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소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장소 애착, 장소 정체성에서 발현된 집단적 측면의 장소 정신, 그리고 개인적 측면의 장소감으로 정의하고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장소성을 형성한다고 제시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에서도 도시 설계 및 환경계획 측면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장소성 연구가 진행되었고(김유곤, 서기영 2000; 김희진, 최막중 2016; 이일우, 강건희 2000; 황준기, 오동훈 2015), 마케팅(최막중, 김미옥 2001), 지역 콘텐츠 개발과 정체성(박정수, 유현준 2007; 정근식 2010; 한범수, 김희영, 박상훈 2008; 최희수 2018), 문학작품(김민숙 2012)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소성 개념을 적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최막중, 김미옥(2001)은 대학교와 로데오 거리를 중심으로 어떤 요인들이 장

소성을 형성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여 마케팅 요소로 장소성 개념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특정 장소성이 방문 목적지 선택 의사결정뿐 아니라 소비자의 방문 의도 및 소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희수(2018)는 수원 화성문화제의 지속 및 발전을 위해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자체 콘텐츠 개발을 통한 고유 장소성 형성의 중요성을 짚어냈다. 소재, 스토리텔링, 고유 장소성을 모두 갖춘 '킬러 콘텐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수원 화성문화제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자체 브랜드 개발을 제안하였다. 특히 장소와 공간의 개념을 문학작품에 적용한 연구들은 해외에서 진행된 장소성 연구에서는 볼 수 없는 양상으로, 문학작품 내에 묘사된 특정 장소를 분석함으로써 화자 또는 작가가 몸담은 시대의 공간, 장소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김민숙 2012).

도서관 관련 장소성 연구로는 공공도서관, 학교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등 각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장소 애착심 및 장소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이정호 2012; 이병기 2017). 도서관이 단순히 정보자원을 얻을 수 있는 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물고 싶고 자발적으로 방문하고 싶은 장소로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해당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정호(2012)는 도서관이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장소의 역할 모두를 충족시켜야 함에 대해 언급하면서 도서관 이용자 관점에서 공공도서관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량적 장소성 형성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물리적 공간과 이용자 경험에 바탕을 둔 심리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공공도

서관에 대한 고유 장소성을 형성하며 이 과정에서 장소 애착의 매개 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병기(2017)는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교육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학교 도서관의 장소성 형성과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의 장소성 형성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보고 초·중·고 학생에 따른 장소 애착 및 행동 의도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초등학교는 활동·행태적 요소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심리적 요소는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 학교도서관에 있어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장소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기존 장소성 관련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특정 장소 및 도시, 지역 계획에 대한 장소성을 파악한 미시적 관점에서의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특정 장소와 도시, 지역 등과 관련한 미시적 수준의 장소성 분석이 아닌 장소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90년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문헌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외 장소성 관련 연구의 동향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3. 연구 방법

3.1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장소성 관련 연구의 동향파악을 위해서 주경로 분석과 동시출현단어 기반 연관어 네트워크의 구축을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내 논문데이터는 DBpia(www.dbpia.co.kr)에서 해외 논문데이터는 Scopus 데이터베이스(www.scopus.com)에서 1990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발행된 논문을 수집하였다. 수집에 사용된 키워드는 국내 데이터는 '장소성'이며 해외 데이터는 'sense-of-place'이다. 총 3,114건의 논문(국내 717건, 해외 2,397건)이 수집되었고 발행 시기별 수집된 논문 건수는 <표 1>과 같다.

초록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전처리 과정에서 국내 논문데이터의 경우에는 '장소', '연구', '공간', '분석', '논문' 등의 단어와 해외 논문데이터의 경우 'place', 'sense', 'paper', 'space', 'analysis', 'paper', 'article' 등 장소성 관련 문헌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를 불용어로 처리하였다. 한글 데이터의 형태소 분석은 파이썬 3.0(www.python.org)에서 제공하고 있는 Konlpy 라이브러리(www.konlpy.org)의 Komoran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였고, 영어 형태소 분석은 파이썬 nltk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명사를 추출하였다.

3.2 주경로 분석

주경로 분석은 인용 문헌 네트워크를 바탕으

로 인용 문헌 간 가장 의미 있는 경로를 추출하는 기법으로 특정 학문 또는 연구 분야에서의 발전 방향을 추적하는 데 많이 쓰이는 기법이다(Liu 2011). 인용 문헌 네트워크에서 문헌은 노드(node)가 되고 인용 문헌(citing document)과 피인용 문헌(cited document) 간의 관계는 링크(link)가 된다. 이때 주어진 인용 문헌 네트워크에서 다른 노드로부터 피인용 받은 횟수가 0이며 다른 노드를 인용한 횟수가 1 이상인 노드를 소스(source), 반대로 다른 노드로부터 피인용 받은 횟수가 1 이상이며 더는 다른 노드를 인용하는 횟수가 없는(인용빈도 0) 노드를 싱크(sink)라 한다. 즉, 소스노드는 주경로의 시작점이 되고, 싱크노드는 마침점이 된다. 이론적으로 인용 문헌과 피인용 문헌 간의 인용 횟수는 1이다. 주경로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소스와 싱크 사이의 모든 경로에서 각 노드와 근접한 이웃노드를 지나가는 횟수인 횡단가중치(traversal weight)를 산출하고 횡단가중치가 가장 높은 경로를 포함하고 있는 경로를 주경로로 결정한다(Nooy 2005). 본 연구는 주경로를 추출하는 방법 중에 전역 가중치를 고려하는 전역 주경로(global main path) 기법을 채택하였다. 전역 주경로 기법은 인용 네트워크

<표 1> 수집된 국내외 장소성 관련 논문 건수

| 발행 시기 | 국내 논문 (건수) | 해외 논문 (건수) | |
|-------------------|------------|----------------|----------------|
| | | 1990-1995 (P1) | 1996-2000 (P2) |
| 1990-2005 (P1-P3) | 90 | 1990-1995 (P1) | 97 |
| | | 1996-2000 (P2) | 212 |
| | | 2001-2005 (P3) | 365 |
| 2006-2010 (P4) | 133 | 496 | |
| 2011-2015 (P5) | 307 | 705 | |
| 2016-2018 (P6) | 187 | 522 | |
| 합계 | 717 | 2,397 | |

전체에서 가장 큰 값의 횡단가중치를 선택하고 이 경로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와 싱크를 연결하는 경로를 추출하는 기법이다. 이와 달리 지역 주경로(local main path) 기법은 소스에서 출발하여 싱크로 찾아가는 경로를 선택할 때 가장 큰 값의 횡단가중치를 가진 경로를 선택하여 싱크까지 도달하는 경로를 추출하는 기법이다. 지역 주경로는 때로 전체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횡단가중치를 포함하고 있는 경로를 포함하지 않는 주경로가 추출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Liu and Lu 2012).

본 연구에서는 인용 문헌 네트워크의 구축이 가능한 Scopus DB에서 수집한 해외 논문데이터를 대상으로 주경로 분석을 시도하였고 서지 분석 도구인 VOSViewer(www.vosviewer.com)를 이용하여 직접 인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3.3 연관이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장소성 관련 국내의 연구동향을 시기별로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동시출현 단어기반 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연결망 분석개념을 적용하여 각 시기별 중요 단어들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동시출현 단어기반 연관이 분석은 계량정보학 분야의 분석기법 중 하나로 한 텍스트 또는 문맥에서 동시출현하는 단어들의 패턴을 이용해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기법이다(He 1999). 동시출현빈도가 높은 단어 쌍일수록 두 용어의 연관성은 높다고 가정한다(Morris and Van 2008). 그리고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사용하는 중심성 개념을 적용하여 시기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단어와 관련어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사회

연결망 분석이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망의 형태나 패턴을 분석하여 그 구조를 연구하는 분석 기법을 의미한다(김성희, 장로사 2010).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연결망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지표로는 구조 내의 중심성 개념이 많이 활용된다(Freeman 1978). 중심성이란 전체 연결 네트워크 가운데 한 노드가 얼마나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이는 연결 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된다(이동원 2017).

연결정도 중심성은 특정 노드의 관여도 및 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많은 연결을 지닌 노드일수록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중심성 지표 가운데 가장 직관적이다(Prell 2012, 97). 근접 중심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바탕으로 전체 연결망의 집중화 정도를 나타낸다(최일영, 이용성, 김재경 2010). 매개 중심성은 다른 노드들에 대한 매개 역할을 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로 특정 노드는 매개 역할을 하는 노드를 거쳐야 하므로 매개 중심성이 높은 노드일수록 해당 연결망에 큰 관여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박병언, 임규진 2015). 본 연구에서는 각 논문데이터의 초록을 대상으로 형태소 분석 후 동시출현 단어 쌍을 추출하여 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Gephi 0.9 버전(www.gephi.org)을 연결 정도와 매개중심성을 계산하여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논문데이터의 발행기간은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이다. 시기별 구분은 5년씩(마지막 기간은 3년) 구분하여 총 6구간

(P1: 1990-1995년, P2: 1996-2000년, P3 2001-2005년, P4: 2006-2010년, P5: 2011-2015년, P6: 2016-2018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내 논문의 경우, 90년대를 시작으로 장소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2000년대 중반을 지나서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처음 세 구간(P1~P3)을 하나의 구간(1990-2005년)으로 묶고 나머지 구간은 동일하게 5년씩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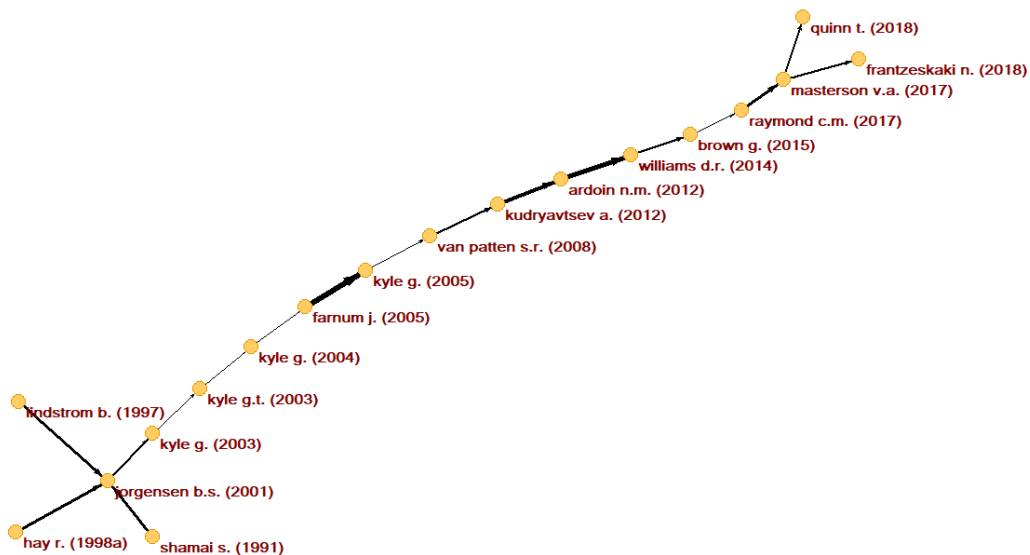
4. 연구 결과

4.1 주경로 분석 결과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발행된 장소성 관련 문헌에서 추출된 주경로는 총 18건의 문헌이 포함되었다. <그림 1>은 추출된 주경로를 시각화

한 것으로 노드는 문헌을 나타내고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는 인용 관계를 나타낸다. 링크의 굵기는 SPC가중치를 반영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주경로에 포함된 주요 문헌이 다루고 있는 특징들을 짚어봄으로써 장소성 관련 연구 동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추출된 주경로를 구성하고 있는 1990년대 연구들은 장소성 개념을 정립하고 거주 사회 및 문화에 따른 장소성 형성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졌다. Shamai(1991)는 이전까지 다소 모호하게 다루어져 왔던 장소성 개념을 정립하였고 Hay(1998a)는 한 인간의 주거 상태, 가족 구성원들의 성장환경과 생활방식이 장소성을 형성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Lindstrom(1997)은 산업화, 관료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이 거주 사회에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를 탐구하기 위해 시카고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그림 1> 장소성 관련 문헌의 주경로 추출 결과(해외)

선택 의사결정에 관한 조사를 해 산업화 시대의 장소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연구들의 영향을 받은 Jorgensen의 연구(2001)는 특정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측정하는 양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로, 장소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장소 정체성(place identity), 장소 애착(place attachment), 장소 의존성(place dependency)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장소성 관련 연구들은 주로 공공 토지 관리 차원에서 장소성 개념을 도입한 연구가 많이 포함되었다. 이는 미국 내에서 공공 토지 관리에 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자연 자원 보전 및 방문객(여행객) 유치 등 사회적인 담화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 가운데 Kyle의 연구들(2003a; 2003b; 2004)은 특정 자연환경에 사람들이 갖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장소 애착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여행객들이 방문한 지역에 대한 장소성을 연구한 것들이다. Farnum(2005)은 자연 자원 기반 휴양 프로그램과 관광에 있어 장소성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관리자 차원에서 장소성의 활용법에 관해 연구했다. Kyle(2005)은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미국 애팔래치아 트레일 여행객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소 애착 특성에 대한 심리적 요소와 더불어 장소 정체성, 장소 의존성, 사회적 유대감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모델을 제시하였다. Patten(2008)은 휴양 목적의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휴양지 주택이 가진 장소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환경 교육 관점에서 장소성을 활용한 연구(Kudryavtsev 2012)를 시작으로 다

양한 방식으로 장소성을 고찰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Kudryavtsev(2012)는 환경 심리학에 기반을 두어 환경 교육에 있어서 장소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직접적 장소 경험과 환경 교육의 결합이 친환경적 행동을 유발하는 장소성을 형성한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다차원적인 장소성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Ardoin(2012)은 장소성을 4가지 차원(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심리학적)으로 구분해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제시하였다. 과거 환경 교육이 주로 생물학적 관점에서 장소를 고찰한 반면, 이 연구는 장소성을 다차원으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더욱 개선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Williams(2014)는 다원주의와 위치성을 바탕으로 장소성 이해를 위한 네 가지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였고 이를 경관 계획 및 관리 차원에서 적용하였다. Brown(2015)은 장소성 및 장소 애착에 대한 개념을 시민 참여형 지리정보시스템(PPGIS)을 활용하여 장소성을 보다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가시화하였다.

2017년 주요 문헌들은 친환경을 주제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Masterson(2017)와 Raymond(2017)는 환경 보호 및 생태계 지속 가능성과 같은 이슈의 영향을 받아 친환경적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부여 요소로 장소성에 집중하였다. 특히 Masterson(2017)의 연구는 이후 Quinn(2018)과 Frantzeskaki(2018)의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 이들은 주변 환경과 장소성의 관련성 내지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로 2017년 친환경 테마가 2018년에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환경 테마로 논의가 이동한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Quinn(2018)은 해안

지역의 인구와 날씨 변동성의 관련성을 기반으로 날씨에 따른 사람들의 위험 인지도에 초점을 두어 장소 애착 및 장소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시사점을 지닌다. Frantzeskaki(2018)은 현대 도시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의 역할과 장소성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장소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상 논의된 주경로를 요약하자면, 1990년대에 장소성 개념을 정립하고 거주 사회 및 문화에 따른 장소성 형성 및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는 연구들로 시작하여 2000년에는 공공 토지 관리와 자연 자원보전 및 방문객 유치 등 관광과 관련된 장소성 개념이 사회적인 담화로 진행된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는 환경과 심리, 교육적 관점에서 장소성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2010년대 후반에 친환경, 생태계리는 보다 적극적인 환경 주제들이 등장하였다.

4.2 단어 동시출현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장소성 관련 문헌들에서 나타난 단어들의 동시출현빈도를 기반으로 단어의 중요도(〈표 2〉에서부터 〈표 5〉까지)와 이것을 바탕으로 연관이 네트워크를 작성한 결과(〈그림 2〉에서부터 〈그림 5〉까지)를 제시하였다. 단어의 중요도는 3.3에서 언급하였듯이 소셜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연결 정도와 매개중심성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노드는 단어이며, 노드의 색상은 모듈성(modularity)을 기반으로 생성된 커뮤니티를 나타내고, 노드의 크기 및 노드 레이블의 크기는 연결정도가 반영된 것이다. 모듈성은 네트워크의 밀도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추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Newman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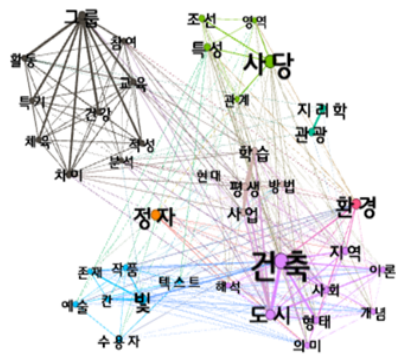
〈표 2〉와 〈그림 2〉는 1990년부터 2005년(P1-P3)까지 시기의 문헌에서 장소성 관련 연관어를 추출한 결과이다. 이 시기에 국내는 해외에 비해 발행된 논문의 건수가 많지 않아 P1, P2,

〈표 2〉 장소성 관련 단어동시출현 기반 키워드 추출 결과: 1990년부터 2005까지(P1-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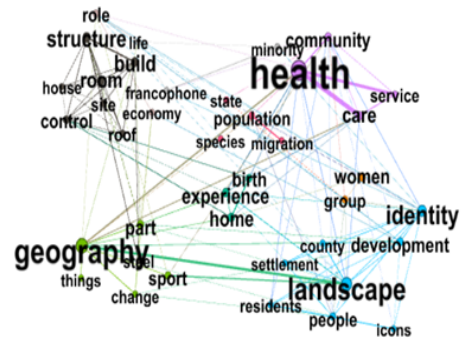
| 순위 | 국내 | | | 해외 | | |
|----|--------------------|------|-------|-----------------|------|-------|
| | 1990-2005년 (P1-P3) | | | 1990-1995년 (P1) | | |
| | 단어 | 연결정도 | 매개중심성 | 단어 | 연결정도 | 매개중심성 |
| 1 | 건축 | 178 | 50884 | health | 84 | 15172 |
| 2 | 사당 | 96 | 10828 | geography | 55 | 8294 |
| 3 | 정자 | 29 | 313 | landscape | 47 | 7856 |
| 4 | 도시 | 68 | 16973 | identity | 34 | 4183 |
| 5 | 환경 | 31 | 1474 | structure | 26 | 1912 |
| 6 | 빛 | 49 | 3558 | build | 23 | 1141 |
| 7 | 그룹 | 49 | 3558 | room | 21 | 788 |
| 8 | 관광 | 49 | 3558 | care | 20 | 675 |
| 9 | 지역 | 54 | 7315 | home | 20 | 3696 |
| 10 | 지리학 | 54 | 7315 | experience | 20 | 2459 |

<표 2> 장소성 관련 단어동시출현 기반 키워드 추출 결과: 1990년부터 2005까지(P1-P3) (계속)

| 순위 | 해외 | | | 해외 | | |
|----|-----------------|------|-------|-----------------|------|-------|
| | 1996-2000년 (P2) | | | 2001-2005년 (P3) | | |
| | 단어 | 연결정도 | 매개중심성 | 단어 | 연결정도 | 매개중심성 |
| 1 | landscape | 162 | 51390 | identity | 307 | 95742 |
| 2 | identity | 142 | 33423 | health | 284 | 97658 |
| 3 | tourism | 135 | 39807 | community | 219 | 45793 |
| 4 | city | 117 | 23105 | experience | 197 | 29788 |
| 5 | heritage | 116 | 17583 | people | 197 | 31891 |
| 6 | community | 108 | 17079 | landscape | 194 | 54358 |
| 7 | people | 102 | 13096 | city | 186 | 51418 |
| 8 | development | 92 | 14631 | plan | 180 | 45558 |
| 9 | group | 83 | 22721 | group | 153 | 16276 |
| 10 | centre | 82 | 4643 | use | 140 | 98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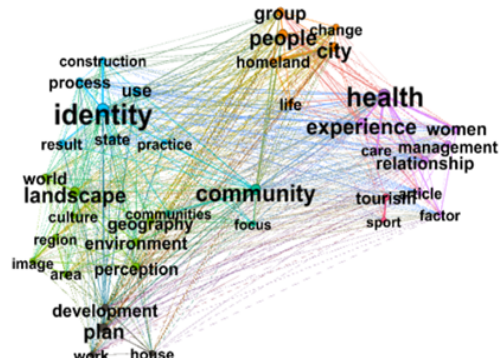
(a) 국내 P1-P3(1990-2005)



(b) 해외 P1(1990-1995)



(c) 해외 P2(1996-2000)



(d) 해외 P3(2001-2005)

<그림 2> 장소성 관련 단어동시출현 기반 연관어 네트워크: 1990년부터 2005까지(P1-P3)

P3를 하나로 묶어 연관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국내의 경우 이 시기의 장소성은 '건축'과 관련된 키워드로 한정되어 나타난다. 건축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사당, 정자, 도시, 지역, 환경 등의 단어가 주요 키워드로 등장한다. 지역에 포함된 특정 건축물을 장소로 인식하는 장소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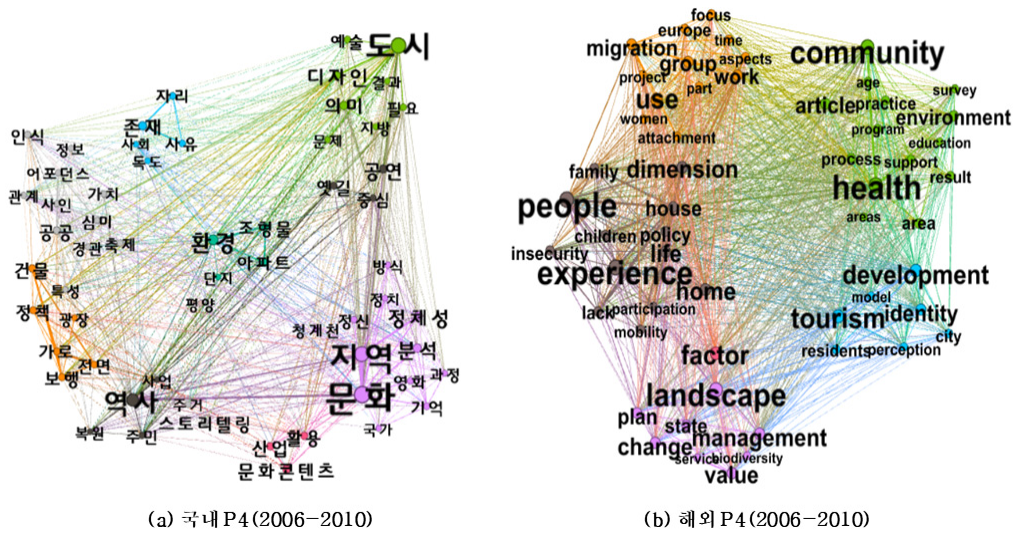
반면, 해외에서는 P1에서부터 P3에 걸쳐 장소성이라는 주제가 건강(health), 지리(geography), 정체성(identity), 관광(tourism), 커뮤니티(communitiy), 도시 계획(city plan) 등의 단어와 함께 등장한다. 국내보다 장소성 관련 논의가 먼저 이루어진 만큼, 특정 커뮤니티 및 공동체에 있어서 정체성 확립과 장소 애착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P1에서 출발한 장소성을 규정하는 정체성과 관련된 개념들, 건강, 서비스, 케어, 경험 등이 P2에서는 관광, 헤리티지, 커뮤니티 등으

로 변화하였고, P3에서는 도시 계획, 활용 등의 단어들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특히 건강은 P1과 P2에서 가장 중심성이 높은 중요 단어로 나타나는데 P1에서는 인구(population), 이주(migration), 소수자(minority), 돌봄(care), 서비스(service) 등의 단어들이 연관어로 나타났고, P3에서는 여성(woman), 관계(relationship), 관리(management)의 단어들이 연관어로 나타나 중심이 되는 건강이라는 개념이 P1과 P3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과 <그림 3>은 2006년부터 2010년(P4)까지 시기의 문헌에서 장소성 관련 연관어를 추출한 결과이다. 이 시기에 국내에서는 '문화'를 중심으로 한 용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에서도 문화, 도시, 역사 등의 단어들이 등장하였고, 연관어 네트워크에서도 문화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도시와 환경, 역사 등의 클러스터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디자인, 공연 등의 키워드가 새롭게 등

<표 3> 장소성 관련 단어동시출현 기반 키워드 추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P4)

| 순위 | 2006-2010년 (P4) | | | | | |
|----|-----------------|------|--------|-------------|------|--------|
| | 국내 | | | 해외 | | |
| | 단어 | 연결정도 | 매개중심성 | 단어 | 연결정도 | 매개중심성 |
| 1 | 문화 | 561 | 249432 | people | 458 | 87337 |
| 2 | 도시 | 507 | 194327 | health | 448 | 151189 |
| 3 | 지역 | 492 | 179839 | experience | 436 | 87860 |
| 4 | 역사 | 373 | 111717 | community | 423 | 122488 |
| 5 | 환경 | 260 | 63180 | landscape | 418 | 158264 |
| 6 | 디자인 | 198 | 29037 | tourism | 369 | 187038 |
| 7 | 정체성 | 195 | 38254 | use | 359 | 43297 |
| 8 | 존재 | 185 | 89695 | factor | 346 | 104262 |
| 9 | 의미 | 185 | 49430 | development | 335 | 57186 |
| 10 | 공연 | 181 | 14650 | home | 317 | 51973 |



〈그림 3〉 장소성 관련 단어동시출현 기반 연관어 네트워크: 2006년부터 2010까지(P4)

장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에서 문화 클러스터 내에는 지역, 영화 등이 포함되었고 역사,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등 단어들도 연관어 네트워크에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에는 문화·역사적인 맥락에서 장소성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한 장소 혹은 그 장소의 예술품 등이 가지는 가치를 문화와 역사적인 맥락에서 탐구한 것이다. 공연, 문화콘텐츠, 축제 등 단어가 두드러진 이유 또한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를 동원해 도시를 개발 혹은 보존하기 위한 연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 도시 및 지역의 고유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해외에서는 P3과 맥락을 같이 하여 사람 (people), 건강(health), 경험(experience), 커뮤니티(community), 관광(tourism) 등의 단어들

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특이한 점은 〈그림 3〉에서 사람 클러스터에 가족(family), 자녀(children), 참여(participation), 불안(insecurity), 애착(attachment) 등의 단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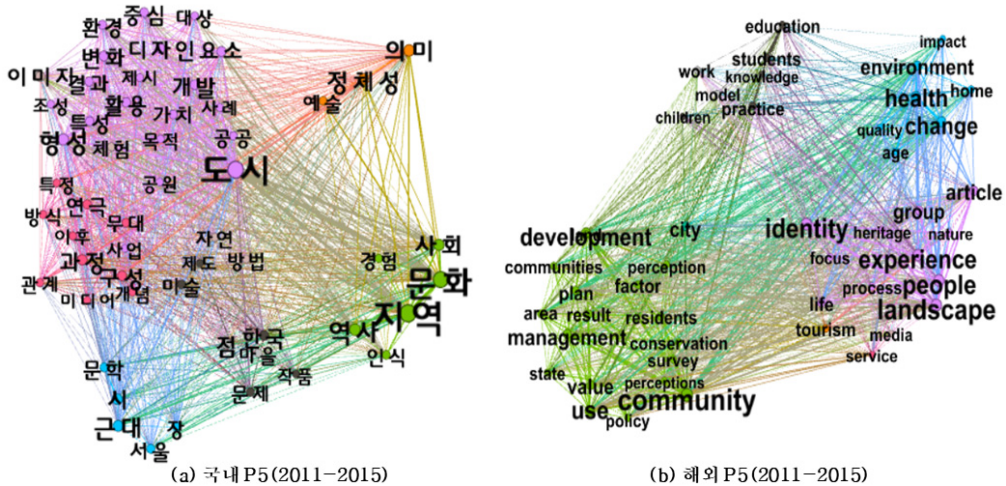
이 집(house)과 가정(home)과 연결되어 등장한다는 점이다. 〈표 4〉와 〈그림 4〉는 2011년부터 2015년 (P5)까지 시기의 문헌에서 장소성 관련 연관어를 추출한 결과이다. 이 시기의 국내 문헌에서 ‘도시’와 ‘문화’, ‘근대’가 강조된다. 특히 〈그림 4〉를 보면 도시 클러스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단어들

이 이전 시기보다 더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 클러스터에는 공공, 변화, 환경, 디자인 요소, 이미지, 체험, 공원 등 다양한 단어들

이 포함되었다. 이는 도시 재생 및 계획에 관한 논의가 다양하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근대·역사 클러스터의 등장은 근대에 후기 산업화로 양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이로 인해 획일화된 공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유 장소성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할

<표 4> 장소성 관련 단어동시출현 기반 키워드 추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P5)

| 순위 | 2011-2015년 (P5) | | | | | |
|----|-----------------|------|--------|-------------|------|--------|
| | 국내 | | | 해외 | | |
| | 단어 | 연결정도 | 매개중심성 | 단어 | 연결정도 | 매개중심성 |
| 1 | 지역 | 914 | 606534 | community | 655 | 274905 |
| 2 | 도시 | 888 | 567710 | landscape | 591 | 339855 |
| 3 | 문화 | 812 | 399437 | identity | 561 | 255390 |
| 4 | 역사 | 503 | 120959 | people | 542 | 151731 |
| 5 | 의미 | 493 | 142437 | experience | 529 | 162508 |
| 6 | 형성 | 488 | 111074 | use | 503 | 116179 |
| 7 | 사회 | 464 | 127843 | health | 490 | 214896 |
| 8 | 근대 | 463 | 180459 | development | 479 | 147845 |
| 9 | 정체성 | 448 | 109482 | change | 464 | 113521 |
| 10 | 시 | 423 | 132015 | management | 400 | 78739 |



<그림 4> 장소성 관련 단어동시출현 기반 연관어 네트워크: 2011년부터 2015년까지(P5)

수 있다. 또한, 아직 문학이라는 키워드는 중심성 순위에 등장하지는 못하였지만 식민지 및 근대를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시)에서 다루어지는 장소성과 연극, 무대, 미디어, 예술 등 장소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양하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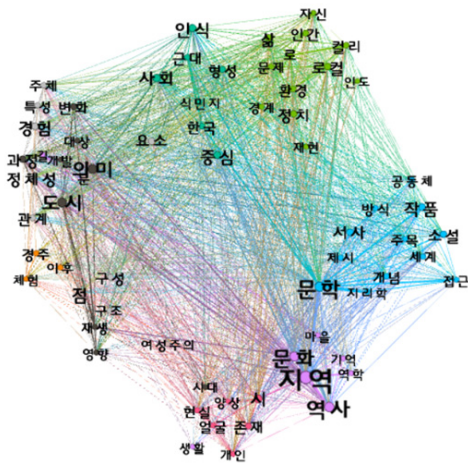
<표 4>를 보면 이 시기의 해외에서는 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인 선행 기간에서 나타나는 단어

들과 별로 차이점이 없는 듯이 보이나 <그림 4>의 연관어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4.1 주경로 분석 결과에서 언급하였듯이 교육(education)과 관련된 단어, 학생(student), 지식(knowledge), 실습(practice) 등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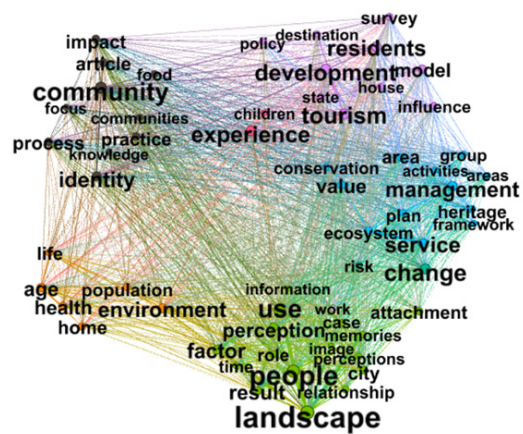
<표 5>와 <그림 5>는 2016년부터 2018년 (P6)까지 시기의 문헌에서 장소성 관련 연관

<표 5> 장소성 관련 단어동시출현 기반 키워드 추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P6)

| 순위 | 2016-2018년 (P6) | | | | | |
|----|-----------------|------|--------|-------------|------|--------|
| | 국내 | | | 해외 | | |
| | 단어 | 연결정도 | 매개중심성 | 단어 | 연결정도 | 매개중심성 |
| 1 | 지역 | 695 | 427167 | landscape | 641 | 368413 |
| 2 | 역사 | 474 | 226585 | people | 568 | 170031 |
| 3 | 문학 | 466 | 220392 | use | 507 | 104454 |
| 4 | 문화 | 444 | 102324 | community | 498 | 210732 |
| 5 | 의미 | 425 | 130715 | change | 437 | 132940 |
| 6 | 도시 | 423 | 162413 | tourism | 427 | 138495 |
| 7 | 시 | 343 | 108373 | development | 415 | 110012 |
| 8 | 사회 | 314 | 48430 | experience | 410 | 89039 |
| 9 | 인식 | 306 | 127041 | residents | 395 | 105181 |
| 10 | 작품 | 290 | 53383 | service | 383 | 133800 |



(a) 국내 P6(2016-2018)



(b) 해외 P6(2016-2018)

<그림 5> 장소성 관련 단어동시출현 기반 연관어 네트워크: 2016년부터 2018년까지(P6)

어를 추출한 결과이다. 이 시기에의 국내에서는 지역, 역사와 더불어 문학, 작품 등의 단어들 이 중심성이 높은 중요 단어로 등장한다. 즉, <그림 5>를 보면 문학 클러스터가 서사, 지리학, 공동체 등 다양한 단어들을 포함하며 주요 클러스터로 등장한다. 문학에 등장하는 장소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문화, 역사, 문학 등이 주요 단어로 등장하였다. 이는 인간

경험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장소라는 개념을 문학작품 내에서 주인공 및 화자의 정서를 이해 하고 해석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해외 문헌은 전 시기에 걸쳐 공통으로 등장하는 건강과 관광이 장소성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 및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키워드이지만 생태계(ecosystem), 보존(conservation), 영향(influence) 등의 단어들이 새로 등장한 것

으로 파악되었다. 고유 장소성이 사람 및 지역 정체성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관점에서 정체성(identity) 또한 꾸준히 언급되었다.

국내와 해외의 장소성 관련 연관어와 중요 단어들의 특징을 비교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의 경우 해외보다 논의가 훨씬 더 다양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도시 개발, 문화, 문학, 역사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었는데, 이는 장소성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가 해외보다 비교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는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국내에서는 문화·역사적인 맥락에서 장소성을 고찰한 경향성이 짙게 나타났다. 이는 감상과 성찰적인 요소가 크다고 여겨진다. 장소성이 결국은 도시, 문화, 개인의 정체성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는 이러한 정체성에 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답을 얻기 위한 노력이 다분하다고 여겨진다.

반면 해외의 경우, 장소성과 관련된 논의는 국내보다 많이 진행되었지만, 시간에 따른 큰 변화보다는 전 시기를 관통하는 큰 테마를 보여준다. 해외에서 나타난 주요 테마는 건강, 정체성, 경관, 도시, 개발이며 시기별로 이런 주요 테마들의 하위 영역으로 확대되어 관련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국내와 비교해 관광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내에서의 논의는 과거에 관한 집중이 강한 반면 해외에서는 환경 조성 and 관광 마케팅과 같은 외적 동기에 초점을 둔 논의로 국내와 비교하여 미래지향적인 특징을 나타내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소개되지 않은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주경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장소성 관련 문헌의 연구동향을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주경로에서 등장한 연구동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들로 각 시기에 제시되는지 동시출현단어를 기반으로 한 연관어 네트워크를 작성하여 시기별 중요 단어를 추출하였다. 특히 1990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발행된 국내외 장소성 관련 문헌을 모두 수집하여 장소성 논의가 이루어지는 전 시기를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이 특정 장소 및 도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장소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큰 차별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각 시기별 국내외 연구동향의 분석은 앞으로 장소성 관련 논의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미약하게나마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에서의 적용에도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해외의 경우 장소성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건강과 관련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 거주자 등 사람들의 신체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 조성, 도시 개발 등과 관련된 연구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국내와 비교해 관광산업에서 장소성에 대한 인식도 돋보이는데 이는 특정 지역이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한 장소의 매력적인 요소를 추출하거나 부각하고자 마케팅·브랜딩 차원에서 장소성을 다룬 문헌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국내에서도 마케팅과 지역 콘테츠 개발의 측면에서 장소성을 언급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연관이 네트워크에서 주요 클러스터로 등장할 만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파악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국내의 문헌의 불균형으로 인해 분석 결과의 비교가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경로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구축한 인용 네트워크가 수집된 문헌의 직접인용(direct citation) 관계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라는 점이

다. 실제 수집한 문헌들이 포함하고 있는 인용 문헌들로 확대한 인용 네트워크를 작성하여 주경로를 추출하였을 경우 장소성 관련 연구에 영향을 미친 타 분야의 공헌을 추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연구는 국내 연구에서 수행하지 못한 인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주경로 분석을 통해 국내의 장소성 관련 연구가 서로 어떤 영향관계를 주고받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민숙. 2012. 백석 시에 나타난 장소성 연구. 『비평문학』, 46: 65-106.

김성희, 장로사. 2010. 사회 연결망 분석 연구동향 및 정보학 분야에서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4): 71-87.

김유곤, 서기영. 2000. 형태구성요소의 분석에 따른 장소성이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대학로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0(2): 211-214.

김혜영, 김세준. 2014. 박물관의 장소성 형성요인이 장소애착과 장소가치인식,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30: 185-217.

김희진, 최막중. 2016. 문화특화지역의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과정과 장소성 인식 변화의 특성: 삼정동과 신사동 가로변을 사례로.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1(3): 97.

박범중, 서선영. 2018. 장소마케팅을 활용한 지역발전 효과 연구: 인천과 부산의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0(2): 167-198.

박병언, 임규진. 2015. 일반영향요인과 댓글기반 콘텐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합한 유튜브(Youtube)상의 콘텐츠 확산 영향요인 연구. 『지능정보연구』, 21(3): 19-36.

박정수, 유현준. 2007. 구 서울역사의 장소성 회복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7(1): 185-188.

백선혜. 2004. 소도시의 문화예술축제 도입과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대한지리학회지』, 39(6): 888-906.

이규목. 1980. 환경지각과 장소성에 관하여. 『건축』, 24(3): 54-56.

이동원. 2017.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연관규칙 확장기법. 『지능정보연구』, 23(4): 111-126.

이무용. 2006. 장소 마케팅 전략의 문화적 개념과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41(1):

39-57.

- 이병기. 2017. 학교도서관에 대한 초·중등 학생의 장소성 형성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73-97.
- 이석환, 황기원. 1997.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5): 169-184.
- 이용균. 2005.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장소마케팅 추진방안.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3): 21-34.
- 이일우, 강건희. 2000. 종로가에 내재되어 있는 장소성의 본질에 관한 연구: 도심재개발의 바탕틀로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0(1): 199-202.
- 이정호. 2012. 공공도서관의 장소성 형성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3): 253-278.
- 정근식. 2010. 지역성, 장소성 그리고 로컬리티. 『로컬리티의 인문학』, 15: 1.
- 최막중, 김미옥. 2001. 장소성의 형성요인과 경제적 가치에 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36(2): 153-162.
- 최일영, 이용성, 김재경. 2010.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 기반한 도서관 학술DB 이용 패턴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1): 25-40.
- 최희수. 2018. 지역 문화축제 평가를 활용한 발전 방안 모색. 『글로벌문화콘텐츠』, 32: 279-298.
- 한범수, 김희영, 박상훈. 2008. 문화관광 콘텐츠의 네트워크를 통한 장소성 강화. 『서울도시연구』, 9(4): 3-22.
- 황준기, 오동훈. 2015. 문화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의한 장소성 변화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7-213.
- Ardoin, N. M., J. S. Schuh, and R. K. Gould. 2012. "Exploring the dimensions of place: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data from three ecoregional sites."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18(5): 583-607.
- Brandenburg, A. M. and M. S. Carroll. 1995. "Your place or mine?: The effect of place creation on environmental values and landscape meanings." *Society & Natural Resources*, 8(5): 381-398.
- Brown, G., C. M. Raymond, and J. Corcoran. 2015. "Mapping and measuring place attachment." *Applied Geography*, 57: 42-53.
- Easthope, H. 2004. "A place called home." *Housing, theory and society*, 21(3): 128-138.
- Frantzeskaki, N., F. van Steenbergen, and R. C. Stedman, 2018. "Sense of place and experimentation in urban sustainability transitions: the Resilience Lab in Carnisse, Rotterdam, The Netherlands." *Sustainability science*, 13: 1045-1059.
- Freeman, L. C. 1978.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3): 215-239.
- Hay, R. 1998. "Sense of place in developmental contex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8(1): 5-29.

- He, Q. 1999. "Knowledge Discovery Through Co-Word Analysis." *In Library Trends*, 48(1): 133-159.
- Hummon, N. P. and P. Dereian. 1989. "Connectivity in a citation network: The development of DNA theory." *Social Networks*, 11(1): 39-63.
- Jorgensen, B. S. and R. C. Stedman. 2001. "Sense of place as an attitude: Lakeshore owners attitudes toward their properti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3): 233-248.
- Kudryavtsev, A., R. C. Stedman, and M. E. Krasny. 2012. "Sense of place in environmental education."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18(2): 229-250.
- Kyle, G. T., J. D. Absher, and A. R. Graefe. 2003. "The moderating role of place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ward fees and spending preferences." *Leisure sciences*, 25(1): 33-50.
- Kyle, G., A. Graefe, and R. Manning. 2005. "Testing the dimensionality of place attachment in recreational settings." *Environment and behavior*, 37(2): 153-177.
- Kyle, G., A. Graefe, R. Manning, and J. Bacon. 2003.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y involvement and place attachment among hikers along the Appalachian Trail."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5(3): 249-273.
- Kyle, G., A. Graefe, R. Manning, and J. Bacon. 2004. "Effects of place attachment on users' perceptions of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a natural sett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4(2): 213-225.
- Lindstrom, B. 1997. "A sense of place: Housing selection on Chicago's north shore." *The Sociological Quarterly*, 38(1): 19-39.
- Liu, B. 2011. *Social network analysis*. Berlin, Heidelberg: Springer.
- Liu, J. S. and L. Y. Lu. 2012. "An integrated approach for main path analysis: Development of the Hirsch index as an exampl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3(3): 528-542.
- Masterson, V. A., R. C. Stedman, J. Enqvist, M. Tengö, M. Giusti, D. Wahl, and U. Svedin. 2017. "The contribution of sense of place to social-ecological systems research: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Ecology and Society*, 22(1): 49.
- Morris, S. A. and B. Van der Veer Martens. 2008. "Mapping research specialties."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2(1): 213-295.
- Newman, M. E. J. 2006. "Modularity and community structure in networks." *PNAS*, 103(23): 8577-8582.
- Prell, C. 2012. *Social network analysis: History, theory, & methodology*. London: Sage.

- Quinn, T., F. Bousquet, C. Guerbois, E. Sougrati, and M. Tabutaud. 2018.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place and risk perception in landscapes of mobility." *Ecology and Society*, 23(2): 39.
- Raymond, C. M., M. Kytta, and R. Stedman. 2017. "Sense of place, fast and slow: the potential contributions of affordance theory to sense of place." *Frontiers in psychology*, 8: 1674.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Vol. 1)*. London: Pion.
- Shamai, S. 1991. "Sense of place: An empirical measurement." *Geoforum*, 22(3): 347-358.
- Tuan, Y. F.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Van Patten, S. R., and D. R. Williams. 2008. "Problems in place: Using discursive social psychology to investigate the meanings of seasonal homes." *Leisure sciences*, 30(5): 448-464.
- Verspagen, B. 2007. "Mapping technological trajectories as patent citation networks: A study on the history of fuel cell research." *Advances in Complex Systems*, 10(01): 93-115.
- Williams, D. R. 2014. "Making sense of 'place': Reflections on pluralism and positionality in place research."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31: 74-8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ik, Seonhae. 2004. "The Introduction of Art Festivals in Small Cities and the Creation of Placenes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9(6): 888-906.
- Choi, Hee-Soo.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Using Evaluation of Local Cultural Festival: Focused on Suwon Hwaseong Cultural Festival." *The Journal of Global Cultural Contents*, 32: 279-298.
- Choi, Il Young, Yong Sung Lee, and Jae Kyeong Kim. 2010. "A Usage Pattern Analysis of the Academic Database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in K University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1): 25-40.
- Choi, Mack-Joong and Mi-Ok Kim. 2001. "Empirical Analysis of Components and Economic Values of the Placeness: The Cases of Daehak and Rodeo Streets in Seoul."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36(2): 153-162.
- Han, Beomsoo, Hee-Young Kim, and Sanghun Park. 2008. "Strengthening the Placeness by Networks of Cultural Tourism Contents Focused on the Themed Street." *Seoul Studies*,

9(4): 3-22.

- Hwang, Zoon-Ki and Dong-Hun Oh, 2015. "Cultural initiative Gentrification phenomenon."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197-213.
- Jung, Keun-Sik. 2010. "Locality and Sense of Place." *Localitology*, 15: 1.
- Kim, Hae Young and Sae June Kim.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Formative Factors of Placeness on Place Attachment, the Value Perception and Visitor's Behavioral Intentions in Museum: A Case of Museums in Jeong-dong." *Korean association of arts management*, 30: 185-217.
- Kim, Hee-Jin and Mack-Joong Choi.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Gentrification and Change in Perception of Placeness in Cultural Districts: The Case of Samcheong-dong and Sinsa-dong Streets in Seoul."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1(2): 97-112
- Kim, Min-suk. 2012. "A Study on the Placeness of Baek Seok's Poetry." *Literary Criticism*, 46: 65-106.
- Kim, Seong-Hee and Rho-Sa Chang. 2010. "The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Social Network Analysis and the its Applicability to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4): 71-87.
- Kim, Yu-Kon and Ki-Young Suh. 2000. "A Study on changing characteristics of a place based on analysis of structural elements of form: focused on a part Tae-Hang-No." *Architectural Research*, 20(2): 211-214.
- Lee, Byeong-Kee. 2017. "A Study on the Placeness Forma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Schoo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2): 73-97.
- Lee, Dong-Won. 2017. "Extension Method of Association Rules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23(4): 111-126.
- Lee, Il-Woo and Kun-Hee Kang. 2000. "An Analysis of the Substance of the Place in Jongro district - In the Direction of the Urban Renewal Based on the Place." *Architectural Research*, 20(1): 199-202.
- Lee, Jeong-Ho. 2012. "A Study on the Formation of Placenes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ography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3): 253-278.
- Lee, Kyu-Mok. 1980. "Notes on the Environmental Perception and a Sense of Place."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24(3): 54-56.
- Lee, Mu-Yong. 2006. "A Study on the Cultural Concept and Methodology of the Place Marketing Strateg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1(1): 39-57.

- Lee, Seock-Hwan and Kee-Won Hwang. 1997. "The Ambiguous Concepts of Place and Placeness."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32(5): 169-184.
- Lee, Yong Gyun. 2005. "Strategic Development of Place Marketing for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8(3): 21-34.
- Park, Beom-Jong and Seonyoung Seo. 2018. "A Study on the Effect of Local Development Using Place Marketing: Focused on Incheon and Busan's Chinatown." *Culture and Convergence*, 40(2): 167-198.
- Park, Byung Eun and Gyoo Gun Lim. 2015. "A Study on the Impact Factors of Contents Diffusion in Youtube using Integrated Content Network Analysis."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21(3): 19-36.
- Park, Jung-Su and Hyun-Joon Yoo. 2007. "The Recovery of Placeness: in Old Seoul Station." *Architectural Research*, 27(1): 185-188.

